

동구 '빛의 음성' 또 하자...말 바꾸기 행정도 빈축

최근 예비 준공검사에서 LED 이상 미발견...뒤늦게 인지 지난달 4일 '정식 개관식' 홍보 불구 '임시 운영...' 해명

정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대대적으로 알렸던 '빛의 음성'에서 개관 한 달 만에 누수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른 하자가 발견됐다.

신축 조형물에서 연이어 하자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광주 동구청의 "임시 운영 중이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정식 개관 전까지 해결하면 된다"는 말 바꾸기는 행정의 신뢰성을 깨는 태도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빛으로 쌓은 광주읍성 제5의 문 '빛의 음성' 개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의 끝자는 같은 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광주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빛의 음성'은 야간관광 구축 사업인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결과물로 총 사업비 45억원(국비 20억원·시비 10억원·구비 15억원)이 투입돼 문화전당로 38에 조성된 체험형 조형물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11시까지로, 이 기간 총길이 944m, 높이 729m, 폭 50m 규모의 LED 스크린에 ▲제5의 문 ▲빛의 성벽 ▲담성 브리지 ▲성돌



지난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가진 '빛의 음성'에서 개관 한 달 만에 누수가 발생한 데 이어 LED 스크린 일부에서 미디어아트 영상이 제대로 상영되지 않는 문제(원내)가 연이어 발생했다. /장은정 기자

구름 등의 미디어아트 영상이 상영된다.

하지만 개관식을 가진 지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에 빛의 음성과 함께 설치된 우물 주변과 계단 밑 등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25일 보수 작업에 착수, 이달 16일 공사를 마쳤다. 이 기간 동구는 LED 스크린 일부에서 미디어

아트 영상이 제대로 상영되지 않는 문제를 처음 발견해 시공사를 통해 복구를 완료했다.

이후 동구는 17일 자체적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다 지난 19일 LED 스크린에서 처음 문제가 발견됐던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현재 시공사에 보수작업이 요청된 상태다.

이에 지역민들 가운데선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정식 개관식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물론, 강기정 광주시장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LED 스크린에서 붉은 한 줄이 나타나 현상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고장난 상태로 상영을 계속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하자는 개관 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기가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4일 가졌던 개관식은 '정식'이 아니라 '임시 운영'을 알리는 행사였다"며 "오는 28일까지 유지·보수 기간이라 그 사이 생긴 문제는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비 준공검사를 이전에 실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LED 스크린에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정식 운영'까지 보수를 마쳐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은정 기자

'6·25 폭주'로 교통사고 피해 키운 7명 검거

구경하던 10대 3명 부상...광주경찰 "단순 해산 넘어 강력 대응"

6·25전쟁 74주년 당일 심야시간 폭주족을 구경하던 행인들이 차량에 치여 다친 사고 장소 주변에서 폭주 행각을 벌인 청년과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과는 22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3명과 19·20세 청년 4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이른 오전 광주 수완지구, 광천사거리, 광주역 일대를 오가며 심각한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족 6·25 모임 공지를 본 이들은 광주와 전남 각 지역에서 폭주 행렬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오토바이로 대열을 만들어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또는 속칭 '원돌이' 등 폭주 행각을 한 25일 당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는 폭주족이 지나간 직후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여파로 차량 1대가 주변 교통섬을 덮치면서 폭주족을 구경하던 행인 3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부상자 대부분도 폭

주족의 지인으로 폭주 행위를 구경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주족이 교통사고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폭주 행위 가담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자 7명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해 향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경고를 하고,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다"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재영 기자

태양광 발전 '42억 편취' 50대 등 무더기 적발

전북 군산지역 태양광 발전(총사업비 572억원·30MW) 사업비를 부풀려 4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기금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대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며 신청서를 위조,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 참여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前)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 공사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김인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관내 음식점을 돌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남은 반찬 재사용 금지 등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남구 공무원들 "의원들 갑질에 직원 피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남구지부)가 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거듭된 파행으로 회기 일정이 2주간 지연돼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22일 오전 9시께 남구청사 9층 의정실 앞에서 '의회 갑질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일 남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시 잡음이 일어난

회 일정이 2주간 미뤄졌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여름 휴가와 겹치게 되면서 노조가 업무보고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회가 이를 거절해 열리게 됐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의회는 의원 간 이런 다툼으로 회기 일정이 2주 넘게 지연됐음에도 사과 없이 제3회 임시회를 오는 25일 열겠다고 공지했다"며 "앞서 제3회 본회의에서 직원이 4분 늦었다고 호통쳤던 의원들이 의회 파행사

태로 늦어진 일정에 합구하는 것은 내로 남벌의 극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달 말이면 학교·학원 방학이 겹쳐 휴가를 써야 하는 직원들이 태반인데 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면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22만 남구민에게 사과하고 업무보고 방식을 서면보고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응할 시 앞으로 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 남구의원은 "23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